

생성의 장소 인제와 박인환의 시 쓰기

류상범(강원대)

1. 명동 백작의 고향, 인제

- 박인환(1926-1956)의 시세계는 주로 한국전쟁, 미국여행이라는 사건들과 연계되며 해명되었다.
- 그 결과 시작의 계기였던 고서점 마리서사(명동), 폐허의 서울과 피난지 부산, <아메리카 기행>의 미국 등의 장소가 부각되었다.
- 이때 고향은 전쟁으로 상실된 공간, 미국문명과 대조되는 결핍의 공간으로 이해되었다.
- 그러나 시대와 길항하며 시를 창작했던 **박인환에게 고향(인제)은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시대의 모순을 해쳐나갈 미학적 장소로 의미화된다.**



인제 박인환 문학관 전경

2. 고향의 실존성

1) 파괴된 고향과 자본, 문명, 사상의 불균정

- 나의 어린 딸이여/ 너의 고향과 너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(「어린 딸에게」)
- 갈대만이 한없이 무성한 토지가 / 지금은 내 고향// 산과 강물은 어느 날의 회화/ 피 묻은 전신주 위에/ **태극기** 또는 **작업모**가 걸렸다./중략/비 내리는 **사경(斜徑)의 십자가와/ 아메리카 공병(工兵)이/ 나에게 손짓을 해준다.**(「고향에 가서」)
- 태극기, 작업모, 아메리카 공병으로 상징되는 사상, 자본, 문명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고향을 파괴되었다.
- 전쟁에 의해 파괴된 고향을 형상화함으로써 **전쟁을 야기한 자본, 문명, 사상의 불균정함을 밝힌다.**

2) 역사와 정체성의 공간으로서 고향

- 태평양에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릴 때/ 중략/이 바다에선 포함(砲艦)이 가라앉고/ 수십만의 인간이 죽었다.(「태평양에서」)
- 한국에서 전사한 중위의 어머니는/ 이제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라고 내 손을 잡고/ 시애틀 시가를 구경시 킨다.(「어느 날」)
- 한국의 진흙과/ 상표도 없는 '공작(孔雀)'의 연기/ 그것은 나의 자랑이다/ 나의 외로움이다.(「여행」)
- "미칠 듯 이 고향 생각이 난다."("에버렛의 일요일")
- 박인환에게 미국은 거대한 문명이자 자유의 공간이었다. 하지만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태평양을 건너고 한국에서 전사한 중위의 어머니에 이끌려 시애틀 시가를 구경하며 미국은 문명과 자유라는 환상으로 점철된 공간임을 인식한다. 그런 가운데 **고향은 그 환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이었다.**

3. 정서와 사랑의 장소

1) 역사와 정체성의 공간

- 아니 나는 바람에 날려와/ 새벽 한 시 기묘한 의식으로/ 그래도 좋았던/ 부식(腐蝕)된 과거로/ 돌아가는 것이다.(새벽 한 시의 시)
- 나는 아직 나를 사랑할 수 없으나 확실히 강원도는 순박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인간의 정서를 말하는 곳 같다(「원시림에 새소리, 금강은 국토의 사랑」)
- 인제/ 중략/ 너에게는 정서와 사랑이 있었다 하더라// 나의 가난한 고향/ 인제/ 봄이여/ 빨리 오거라.(「인제」)
- 미국 여행을 통해 근대적 체제가 강요하는 동일성의 모순을 인식한다. 새벽 한 시 기묘한 의식이라는 도주선을 그리게 된다. 이때의 도주선은 '인제'라는 장소로 구체화된다.
- 휴전 이듬해 박인환은 고향에 대한 산문을 발표한다. 산문 속 고향은 '인간의 정서'를 간직한 곳이다.
- '인제'에서 발견되는 '정서와 사랑', '순환적 시간관'은 근대적 동일성에 대한 저항이자 존재의 의미를 생성하는 공간이다.

2) 시의 원시림과 인제

- 나는 불모의 문명 자본과 사상의 불균정한 싸움 속에서 시민 정신에 이반된 언어작용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었다./ 사랑하던 사람과 시의 산책의 발을 옮겼던 교외의 원시림으로 간다. 풍토와 개성과 사고의 자유를 즐겼던 시의 원시림으로 간다.(「『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』 서문」)
-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. 나의 시의 모든 작용도 이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변하였으나 본질적인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만을 무척 지켜온 것으로 생각한다.(「『선시집』 후기」)
- '시의 원시림으로 간다'는 진술은 박인환의 시적 지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. 박인환은 좌/우, 문명/자연 등의 근대적, 이분법적 체계가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였다. 시의 원시림이란 이분법적 체계에서의 선택이 아닌 제3지대로의 이행이고, 그것의 미적 표현으로써, 인간의 정서와 자유가 생성될 장소로서의 인제 '인제'라는 상상의 장소를 형상화하였다.

4. 결론

- 한국 전쟁과 미국 체험으로부터 견인된 고향 의식은 「인제」로 나 아간다. 「인제」는 근대적 이데올로기의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생성의 공간으로 창조된다.
- 명동 백작, 댄디 보이로 불리는 박인환의 내면에는 유년의 원체험으로써 고향이 존재하였고, 격동의 시기를 경유하며 시적 지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다.
- '인제'의 장소성이 박인환이 시적 지향과 연결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. 박인환에게 '시'는 궁극적으로 동일자의 논리에 저항하는 것 이자 존재 의미를 찾는 정신적 토대였다. **줄곧 '고향'이라는 일반 명사로 호명하던 것을 "인제"라는 실제 지명을 통해 호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.** 이데올로기의 억압에 맞서 '시의 원시림'으로 향하고자 했던 박인환의 욕망은 전쟁의 포화에도 다시금 생성되는 인제(강원도)의 생명력과 순수성과 동일하다. 인제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탈영토화된 미학적 공간을 창조한 이유이다.
- 한국 문학사에서 박인환은 195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이다. 박인환의 시와 산문이 내재하고 있는 로컬리티가 해명될 필요가 있다.

